



몬태나: 광활한 자연, 가슴 뛰는 모험,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곳

몬태나주는 드넓은 하늘, 험준한 산악 지형, 광활한 대지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을 품은 글레이셔(Glacier) 국립공원과 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외에도, 몬태나에는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합니다. 특히 사람 냄새 가득한 작은 마을을 둘러보며 현지의 독특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탐색하고 싶은 모험심 강한 여행자라면, 몬태나만큼 매력적인 곳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북부 로키산맥과 북부 대평원(Northern Great Plains)

에 걸쳐 있는 몬태나주는 캐나다 바로 남쪽에 위치하며, 아이다호,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및 사우스다코타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몬태나주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주로 총면적이 380,800km²(147,040평방마일)에 달하지만, 주민은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면적이 99,720km²이며, 서울의 인구가 몬태나 전체 인구의 10배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몬태나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광활한 대지와 비교적 적은 인구 덕분에 몬태나는 매우 전원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몬태나의 삶은 서부의 울창한 산악 지대부터 주 중앙부의 구릉지대 초원, 동부의 광활한 고원과 황무지까지 변화무쌍한 풍경이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몬태나주 주민과 마찬가지로 글레이셔 국립공원, 옐로스톤 국립공원(공원의 5개 입구 중 3개가 몬태나에 위치) 등 56개의 주립 공원을 포함한 광활한 공유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야외 활동을 즐기고 탐험하며 여가를 보내고 싶다면, 몬태나야말로 무한한 즐길 거리가 있는 최적의 여행지일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하이킹, 캠핑,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겨울에는 눈부신 설원에서 스키, 스노슈, 스노모빌 등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활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 외에도, 현지의 작은 마을, 도시, 농촌 지역사회 및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몬태나만의 생생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지역적 특색, 오랜 전통, 매혹적인 역사, 그리고 원주민 부족과 대지와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기리는 다양한 축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몬태나 전역에 위치한 박물관을 방문하여, 원주민과 토착 문화, 이곳에서 발굴된 공룡 화석, 초기 정착 시기의 광산, 목장 운영에 대해 알아보세요. 유서 깊은 메인 스트리트를 거닐다 보면, 친절한 미소를 띤 현지 주민들을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지닌 호텔, 아늑한 산장 또는 게스트 목장에 머물며 올가미 던지는 법과 승마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몬태나산 소고기, 들소 고기 및 신선한 농산물로 준비된 식사를 즐기고, 지역에서 생산된 밀로 만든 수제 맥주를 맛보세요. 농산물 직판장, 음악 축제, 카운티 박람회, 몬태나의 공식 스포츠인 로데오, 또는 북미 원주민 축제인 파우와우(powwow) 등의 지역 행사에도 참여해 보세요. 몬태나의 과거와 현재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이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몬태나 및 주변 지역 방문하기

여행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항공편으로 빌링스(Billings), 보즈먼(Bozeman), 그레이트 폴스(Great Falls), 칼리스펠(Kalispell, 글레이셔 국립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미줄러(Missoula)까지 이동한 다음 차량을 대여하여 몬태나주 곳곳을 여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총 70,000 마일에 달하는 주 도로를 따라 몬태나 곳곳의 명소를 자유롭게 둘러보며 즐기기 좋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항공편으로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또는 미니애폴리스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몬태나로 가는 직항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보통 여름철)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拉斯베이거스, 시카고, 댈러스, 디트로이트와 몬태나를 잇는 추가 직항편이 운항됩니다. 자동차를 대여하려면 일반적으로 국제 운전면허증과 자국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몬태나주에서는 열차로 갈 수 있는 도시가 한정적이지만, 철도 애호가라면 암트랙의 대표적인 장거리 열차 '엠파이어 빌더(Empire Builder)'를 타고 지역 주민들이 하이라인(Hi-Line)이라고 부르는 몬태나 북부 노선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엠파이어 빌더는 시애틀과 시카고 사이를 왕복하며, 몬태나주에서는 12개의 작은 마을과 글레이셔 국립공원 인근에서 정차합니다. 원래 그레이트 노던 레일웨이(Great Northern Railway)의 일부였던 엠파이어 빌더 노선에는 몬태나의 장엄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보

표준 시간대:

산악 표준시(MST, 한국과 15시간)

주도:

헬레나(인구: 35,000명)

최대 도시(인구 기준):

빌링스(121,000명)

가장 작은 소도시(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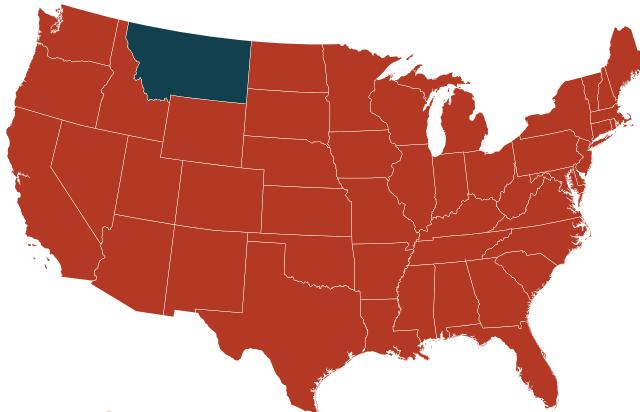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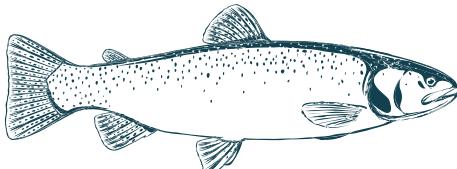
이스메이(17)

주 대표 동물:

회색곰

주 대표 어류:

검은 반점 컷스로트 송어
(Blackspotted cutthroat trout)



주 대표 조류:

서부 들종다리(Western meadowlark)

주 대표 과일:

허클베리(Huckleberry)

주 대표 스포츠:

미국 로데오(American rodeo)

최고봉:

그레이니트 피크(Granite Peak, 3,904m)

몬태나주는 주 전역에서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 내 5개 주 중 하나입니다.

